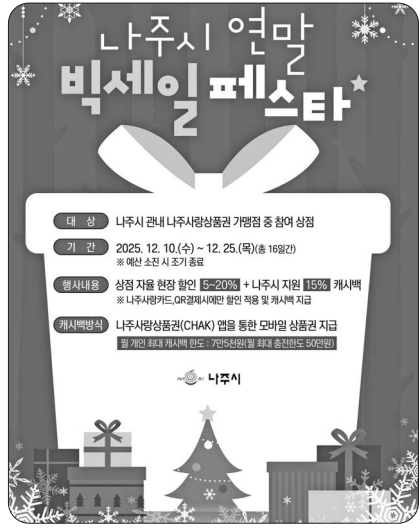


나주, 소비 축제 ‘연말 빅세일페스타’ 연다



10~25일 상점별 5~20% 현장 할인·캐시백 15% 추가 참여 상가 보상지원 신설...상점당 최대 20만원 지원

나주시가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소비 축제를 연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연말 빅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시는 상점별 자체 할인과 캐시백 지원을 결합한 대규모 상생형 할인 구조를 마

련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지역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나주시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최대 300개 상점을 모집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말 빅세일페스타’는 추석 명절

과 영산강축제 기간 운영한 ‘나주시 상가 상생페이백 행사’를 더욱 확장한 방식으로 상점들의 할인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 상가 보상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5~9% 현장 할인 제공 상가에는 10만원, 10% 이상 할인 제공 상가에는 20만원을 행사 종료 후 보상 지원한다.

행사 기간 참여 상가는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자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나주시는 여기에 15% 캐시백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특별 할인 중인

나주시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 할인을 18% (10% 선할인, 8% 캐시백)에 더해 소비자는 최소 38%, 최대 53%에 달하는 실질적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주시는 지역 내 많은 상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착순 300개소까지 참여 상가 모집 진행 중으로 신청은 오는 4일까지이며 나주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서 행사 기간 5% 이상의 자체 할인이 가능한 상점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상생페이백 참가신청’ 게시판 온라인 접수, 이메일,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

수 등으로 상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나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연말을 맞아 시민들께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에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빛쟁원 페스타를 둘러보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나주에서 행복한 소비로 관광도 하고 상생페이백까지 얻어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철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양시의 옥룡 솔밭섬이 ‘2025년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모범도시숲 인증제’는 도시숲의 생태적 가치, 관리 수준, 주민 이용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의 우수 도시숲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다.

광양 옥룡 솔밭섬 ‘2025년 모범도시숲’ 선정

산림청 인증·전남서 유일...시민과 가꾼 생태복원 숲 변모

광양시의 옥룡 솔밭섬이 ‘2025년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모범도시숲 인증제’는 도시숲의 생태적 가치, 관리 수준, 주민 이용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의 우수 도시숲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됐다.

서류심사에서는 도시숲의 조성 목적과

관리 체계, 이용 현황 등을 검토했으며, 현장심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생태환경, 시설물 관리 상태,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신청한 27곳 중 6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옥룡 솔밭섬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옥룡 솔밭섬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형성된 하천 내 자연섬을 생태적으로 복원에 조성한 도시숲이다.

훼손된 하천 공간을 복구하고 생물다양성이 살아 있는 생태체험형 숲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표 생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솔밭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소나무 군락지가 숲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사계절 푸르른 아름드리 소나무를 배경으로 봄에는 장미와 벚꽃,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꽃무릇, 겨울에는 동백 등 다양한 수종이 조화를 이루며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또 공동체 정원과 생활밀착형 숲 공간을 갖춘 개방형 숲으로 조성돼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숲체험, 숲속힐링체험 등 외부 기관·단체의 자연학습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옥룡면청년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은 기초실서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시민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도시숲 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김종을 광양시 녹지과장은 “이번 모범도시숲 인증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도시숲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느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경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강진, 장미농장 스마트 LED로 이상기상 대응

식물생장 증대·에너지 효율 ‘효과’...“현장 실용기술 발굴”

강진군이 올해 장미농가에 시범보급한 스마트 LED 보광기술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공모한 ‘2025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육성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 장미 재배농가 8개소에 식물전문 LED 보광등을 시범 설치했다.

LED 보광등은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일조량이 부족할 때 장미의 생장점에 직접 빛을 공급해 생육을 촉진하고 품질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식물 재배 맞춤형 LED 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식물 생장에 가장 효율적인 빛의 파장별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져 기상에 관계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칠량면 이경철씨(45)는 “사업 전에는 자연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시기에 따른 생산 편차가 컸고 예상치 못한 병해충 발생도 빈번했다”며 “LED 보광등 설치에 따라 수확도 빠르고 꽃의 품질도 좋아져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애 강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 사업은 최신 개발된 LED 보광등을 현장에 적용해 이상기상에 대응해 실질적인



LED 보광등 아래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다.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장미를 대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미 직거래 포장 자동화, 접삽묘 육묘장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전국적인 전략작목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여수시는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도 전남도 이송 고충 민원처리 실태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수, 전남도 이송 민원처리 ‘최우수기관’

시 단위 지자체 중 유일...현장 중심 처리·민원 만족도 향상

여수시는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도 전남도 이송 고충 민원처리 실태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22개 시·군 중 시 단위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여수시의 민원행정 품질이 도내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시·군으로 이송된 고충민원의 처리 수준을 종합 평가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도 주관으로 추진됐다.평가 항목은 민원 처리 기한 준수 여부, 민원 관련 행정 이행사항 이행 여부, 권익위 민원 답변안 준수 여부, 답변 통지장 준수 여부, 민원인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1차 자체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여수시로 이송된 민원은 총 5827

건 중 959건 (16%)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했음에도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여수시는 청사 분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소민원팀 주관으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민원처리’ 방식을 적극 추진해 민원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화순, 지역화폐 할인 확대 모바일 한도 200만원 상향

화순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2월 한 달간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의 구매·보유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9월부터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하고 있다. 군은 연말 소비를 촉진하고자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의 구매·보유 한도를 12월 한 달간 각각 2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CHAK(착)’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2800여개소에서 QR코드 결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10월 한시적으로 구매 한도를 확대했을 때 지역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번 구매·보유 한도 확대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순천 ‘제5회 자치박람회’ 주민자치 모델 제시

소통형·참여형 축제의 장

순천시가 주민자치 표준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시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제5회 순천자치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주민자치 표준 모델, 순천이 앞장섭니다!’를 슬로건으로, 전국 주민자치회 본적 시행을 앞두고 순천형 주민자치 모델을 공유·제시하며 전국적 확산을 이끄는 방향제시형 행사로 마련됐다.

단순 전시 형식을 넘어 전시·토론·평가·체험을 결합한 종합 박람회로 확대해 시민과 자치위원,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소통형·참여형 축제의 장으로 운영됐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읍면동 전시부스에서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마을사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자치의

의미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자치박람회로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순천의 자치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그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시대를 맞아 순천이 앞으로도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환경친화적 박람회를 목표로 순천지역자활센터 ‘एको워싱’을 통해 부스별 대화용기 대여 및 화수 시스템을 도입해 박람회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크게 줄이고,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x@gwangnam.co.kr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시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제5회 순천자치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